

“신곡은 강제이주 고려인을 위한 위로이자 헌사”

정유진 바이올리니스트 인터뷰

최근 신곡 ‘코료사람’ 발표
음악적 위로·예술적 기록
AI로 구현된 영상 ‘눈길’
“고려인 연작” 이어갈 것”

“이 음악은 고려인들을 향한 위로이자 헌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이야기죠.”

광주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정유진이 고려인 강제이주사를 음악으로 표현한 신곡 ‘Корё-сарам(코료사람)’을 발표했다. 정유진은 최근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곡의 제작 과정과 의미를 털어 놓으며 “삶의 터전과 언어, 이름을 빼앗긴 이들의 이야기이자, 역사를 되살리는 예술적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번 곡은 1937년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여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유진은 낯선 땅에서의 비통함과 노동, 연대의 감정을 바이올린 선율로 풀어냈다. 기차 소리로 시작되는 곡은 이주의 떨림과 고통을 표현하고, 이어지는 음악에서는 공동체가 서로 기대어 살아간 시간들이 녹아든다.

정유진은 이 곡을 단지 하나의 연주곡이 아닌 “상실과 기억을 담은 음악적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희생됐고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싶었다. 잊히지 않아야 할 역사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가 고려인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다큐멘터리 시청 이후 남편과의 대화였다. 고려인 마을을 다녀온 남편이 전



정유진 바이올리니스트.

한 말로 다 담기지 않는 감정이 정유진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는 곧바로 작곡

을 시작했다.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을 수차례 방문하며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 역시 작품에 깊이를 더했다.

정유진은 “광주는 아픔을 기억하고 연대하는 도시다. 나도 그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예술가”라며 “이번 곡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공동체의 상처와 회복을 마주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음악뿐 아니라 시각 예술 요소도 함께한다. 앨범 커버는 박상지 문화학 박사가 미드저니와 챗GPT를 활용해 20회 이상 수정하며 완성한 이미지다. 기차길 위에 놓인 보라색 꽃은 위로, 애도, 고귀함, 희망을 상징한다.

뮤직비디오에는 고려인의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인공지능(AI) 영상이 활용됐다. 멈춰 있던 흑백 이미지를 생명력 있게 되살린 이 영상은, 정유진의 음악

과 함께 ‘숨 쉬는 기억’으로 다가온다.

이번 작업에는 정유진의 오랜 음악적 동료들도 함께했다. 피아니스트 김세희, 음악감독 이정옥은 작품의 흐름과 서사를 정교하게 다듬으며 완성도를 높였다. 세 사람은 버클리음대 재학 시절부터 함께 작업해 온 인연이 있다.

정유진은 앞으로도 고려인 연작을 이어갈 계획이다. 첫 곡 ‘코료사람’이 이별과 이주의 순간을 담았다면, 후속곡들은 새 터전에서 겪은 삶의 단면과 정체성, 희망의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는 “고려인들이 새로운 땅에서 겪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지켜낸 가족과 문화를 중심으로 희망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며 “음악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망각되지 않은 역사’로 남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서홍석 작가 개인전 ‘쇠뇌 찾아가는 박물관’ 열려

10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무기 ‘쇠뇌’ 통해 기술력 조명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전시공간지원사업’ 네 번째 전시로, 서홍석 작가의 개인전 ‘쇠뇌 찾아가는 박물관 : 사라진 역사의 조각, 되살아나는 지혜’를 오는 10일까지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1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전시공간지원사업’은 광주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4회차 전시는 창작 활동의 무대를 넓히는 동시에 시민에게도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서홍석 작가는 잊힌 무기 ‘쇠뇌’를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

닌, 우리 민족의 뛰어난 과학적 사고와 독창적인 기술력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바라본다. ‘찾아가는 박물관’이라는 콘셉트 아래, 실제 쇠뇌 실물과 그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물관의 벽을 넘어, 일상 속 전시로 역사와 기술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인 셈이다.

전시 관람은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https://www.gjcf.or.kr>), 빛고을시민문화관 누리집(<https://bitculture.gjcf.or.kr>),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https://dmgj.kr/main/>)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찬 기자



정혜정 작 ‘끝섬(VER.2)’

ACC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미디어아트 유통 ‘성황’

전국 11개 기관과 협력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창작·제작 미디어아트 작품이 전국 곳곳에 유통되며 호평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미디어아트 콘텐츠 유통’은 올해 초 전국 문화기관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협력 전시 기관 공모를 시행해 총 11개 기관을 선정했다.

유통 작품은 협력 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전시장 규모와 상황에 맞춰 작품을 다시 제작했다.

유통 작품들은 지난 5월부터 제주항공 우주박물관을 비롯해 안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대구섬유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외벽, 서울 동대문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정읍시립미술관 등 전국 6개 기관에서 잇따라 전시되고 있다.

오는 15일 청송문화관광재단에서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와 ‘루덴스토피아’ 전시를 개막한다. 23일에는 강릉시립미술관 숲속에서 △끝섬(VER.2)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하는 색들 △불과 열음의 노래 △고사리 걸음 등 총 4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수 기자

이세현 작가, 제31회 광주미술상 수상

사진 통한 장소의 역사성 조명
창작지원금 1000만원 등 혜택

이세현(41) 작가가 제31회 광주미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일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4~27일 공모를 진행한 뒤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후배를 압축, 운영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이 작가는 작품 발표에서 “사진을 기반으로 역사적 장소에 주목하며, 그 안에 깃든 기억과 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해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누군가의 특별한 일상이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 기억이 되며, 결국 역사가 되는 과정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작가의 작업은 기억의 장소를 되새김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역사성을 함께 되돌아보게 한다.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이 작가에게는 개인전(12월 예정) 준비과정의 창작활동비 및 도록제작비, 광고비, 전시운영인건비 등 1000만원 상당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전시공간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작가와 대화의 장도 지원된다.



제31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이세현(왼쪽) 작가가 오건탁(오른쪽)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제공

아울러 수상작가가 45세가 되면 광주미술상 운영위원으로 동참하게 된다.

한편 ‘광주미술상’은 ‘광주미술제’, ‘광주비엔날레’, ‘광주통일미술제’가 이어지며 지역미술이 크게 도약하던 1995년 첫 창작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다.

역대 수상 단체 및 작가 대부분은 선배 미술인들의 관심과 격려로 창작 의지를 키워가며 국내외 미술계에서 광주·전남은

물론 한국미술계 주역들로 빛나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오건탁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이사장은 “광주미술상이 청년 미술작가들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도 창작활동에 위촉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창작 역량을 발휘해 지역·남도미술을 넘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1 국립광주박물관, ‘제36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광주·전남 초등학교 대상 150명 모집
내달 11일 개막…10월1일 결과 발표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6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다음달 11일 개최한다.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관찰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며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생(또는 동일 연령 청소년)으로, 총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마감 시한은 다음달 7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된 작품은 미술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창의력, 묘사력, 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1일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입상작은 10월18일부터 12월7일까지 국립광주

박물관 로비에 전시된다.

최홍선 국립광주박물관 관장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는 아이들이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느끼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단순한 미술 대회를 넘어,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062-570-7800)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